



유엔에스캡 아태경제사회보고서 2014 발간회 대한민국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주요 보고서는 아태지역 개도국이 올해도 다소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재정완화와 국내 구조적인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2014 년 아태경제사회보고서 (The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는 이 지역 대다수 국가들이 세수입 (tax revenues) 강화라는 잠재성을 간과하였으며, 이것을 초점으로 한 자원유동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무역주도의 동북아는 작년 4.2 퍼센트에서 2014 년에는 4.1 퍼센트로 적정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한다고 예상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3 퍼센트 성장에 비해, 올해 7 월에 발표한 경기부양대책 덕분에 4 퍼센트 증가하였다. 하지만 주요 과제는 낮은 실질소득성장과 편평한 실질가계자산으로 인한 저조한 국내수요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에스캡 보고서는 선진경제권들의 무역규제 방안으로 인해 2009 년과 2013 년 사이 150 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경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엔에스캡 동북아사무소는 (East and North-East Asia Office) 8 월 28 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23 회 동북아경제포럼의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부대행사로 보고서 발간회를 가질 것이다.

유엔산하 지역위원회인 에스캡의 주요 보고서는 회원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및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보고서 및 발간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 참고:
하예진 경제담당관,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032-458-6621, 010-2925-8172
ha@un.org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는 동북아지역 6개 회원국가인 중국, 북한, 일본, 몽골, 대한민국, 러시아와 2개의 준회원 국가인 홍콩, 마카오의 다자간 협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10 년 5월에 개소하였다.

동북아사무소 관련 정보

웹사이트 <http://ene.unescap.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UNESCAP.ENE & 트위터 @UN_EastAsia



유엔에스캡 아태경제사회보고서 2014 발간회

2014 년 8 월 28 일 목요일
아트홀, 서울 셰라톤 워커힐 호텔

프로그램

17:45 - 18:00	도착
18:00 - 18:05	영상 메세지: 샴샤드 악타 유엔에스캡 사무총장/유엔 사무차장 <i>Dr. Shamshad Akhtar, Executive Secretary of ESCAP and Under-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i>
18:05 - 18:20	보고서 주요 내용 발표: 킬라파티 라마크리쉬나 유엔에스캡 동북아사무소 소장 <i>Dr. Kilaparti Ramakrishna, Head of ESCAP-ENEA</i>
18:20 - 18:40	질의 응답
18:40 - 20:00	식사
